

문제 유형이 바뀌었으니 공부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문법도 ‘공부’ 해야 합니다.

다음은 2015학년도 B형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1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의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 ① ‘읽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웁는다[웁는다]’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닭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웁는다[웁는다]’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뵈는다[뵈는다]’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정답을 쉽게 찾으셨나요? 참고로 이 문제는 [2015학년도 B형 수능 국어 오답률 1위\(73%\)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해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법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음운론’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이죠.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선 **오답률 1위, 무려 73%의 학생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를 본 학생들은 가장 먼저 자음의 ‘탈락’과 ‘교체’를 구분하는 것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이 개념은 모든 문법서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답을 구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의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 받침 발음의 원칙’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법서에서도 이 부분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음화’가 무엇이고, ‘자음군 단순화’가 무엇인지 개념을 주입하고 단순 암기하도록 유도할 뿐이었죠.

그러나, 문법의 끝은 다릅니다.

① 자음 동화

: 특정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우리말은 자음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지만 자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변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때, 자음이 변동하는 이유는

크게

- 1) 발음의 편의
- 2) 표현의 명확성

이예요. 이제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말 그대로 불편한 발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동하거나 발음은 불편하지 않은데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 안 될 경우에는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변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음운의 변동에는 들어가지지만, 표준 발음법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원리를 이해하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자음 동화의 원리를 설명한 후,

㉔ **비음화**[鼻(코-비)音(소리-음)化(변-화)] (안올림 + 올림)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비음화 ①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변하는 현상

예) 밤물 → [밤물], 섭리 → 섭니 → [섭니]

국민 → [궁민], 국물 → [궁물]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올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마찰음	예사소리		비음화 ㄴ	비음화 ㄹ		비음화 ㅇ	ㅎ
		된소리		비음화 ㄴ	비음화 ㄹ		비음화 ㅇ	
		거센소리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올림 소리	비음		ㄹ	ㄴ		ㅇ		
	유음			비음화 ㄴ				

[비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ㅎ), ㅂ(ㅃ,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명는] 달는[단는] 밤물[밤물]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놓는다[챙년는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비음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둔 후,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또 실제 원리가 무엇인지, 실제 한글 맞춤법 조항에선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세세하게 다 넣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효율’과 ‘실전에 통하는 원리’입니다.

문법 공부는 한 번에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잘 잡힌 개념은 어떠한 실전 문제에도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올해 교재는 더 세세한 설명과 더 많은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적용된 문법 교과서, 그간의 EBS 교재에서 언급한 개념들, 7차 교육과정 내의 05학년도 수능, 6월·9월 평가원 문제들과 교육청 문제들을 비롯한 작년 2016학년도 수능 A형·B형 문제들까지 10년치 문법 기출의 총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재는 어떤 책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의문없이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해보세요.

1. 개념을 이해하세요.

시중에 수많은 기출 문제 해설서가 존재하지만, 2015 A형·B형 수능의 문법 부분은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013학년도 수능까지 2문제에 불과하던 문법 문제가 2014학년도 수능부터 5~6(A형은 11번~15번, B형은 11번~16번)문제로 크게 늘었고, 구체적으로는 ‘비문학[언어]’(현재의 ‘독서’)로 출제되던 부분이 문법으로 전환되어 독해만으로 문제 풀이가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기본적인 교과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 역시 바로 그런 개념들이 제시된 문제였고, 이러한 경향은 2014학년도 예비수능, 6월, 9월 모의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결국 수능 역시 기본적 개념을 전제로 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능(2013학년도까지의 수능)과는 달리 6월, 9월, 수능 A형·B형 모두 상위 오답률 5위 문제 안에 문법 문제가 들어갈 정도로 실제로 수험생들 역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개념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수적인 문법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외워야 하는 개념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저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의 문법 강의도 병행했습니다. 벌써 9~10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특목고 입시에 이 시험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에서 다루는 문법까지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점이 있어요.

달달 외워서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해하지 않고 외우기만 하는 문법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고, 떨리는 수능 시험장에선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방식은 외울 것을 외우더라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외우자! 였습니다. 외울 개념들이 있다면, 그 개념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하고, 실제 시험에선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개별 사례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문법에 해당하는 정의가 왜 그렇게 도출되었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음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념서에서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을 만나 ‘비음 ㅇ, ㄴ, ㄹ’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외에 별다른 설명은 없죠. 그럼 학생들은 이것 그대로 외우곤 해요.

이 개념이 왜 만들어졌고, 이 설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궁금해 하지도 않고 바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음화가 나올 때 헷갈리게 됩니다. 파열음이었던가 파찰음이었던가, 마찰음이었나, 어떤 음운이 어떤 음운으로 변하는 것이었지? 등등 외울 당시엔 궁금해 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세요.

간단하게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때, 비음이 아닌 음운은 안울림 소리이고, 비음은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충돌하면 ‘충돌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안울림이 울림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문법 개념을 기억하며 이해하는 거죠.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ㅍ		ㄱ	ㅎ		
		된소리	ㅃ	ㅑ		ㄲ			
		거센소리	ㅍ	ㅑ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된소리		ㅆ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유음				ㄹ					

이 때, 안울림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울림소리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ㅂ’은 ‘ㅁ’으로, ‘ㅌ’은 ‘ㄴ’으로, ‘ㄱ’은 ‘ㅇ’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 대응되는 음운을 확인하며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어때요? 외울 필요도 없는 개념이죠? ^^

이처럼 외워야 할 개념들은 원리를 이해한 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3.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바로 실전에 적용해 봅시다.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풀다보면, 어느 순간 답만 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와 관련된 부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풀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수능은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개념이 상당수 반영된 ‘문법’ 영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법 문제의 기출 문제 분석은 특히, 문제들을 범주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들을 모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고 보게 되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끝’에선 다른 기출 문제 해설서와 달리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개념의 기출 빈도, 출제 중요도를 표시하여 학생 스스로가 직접 난이도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실어 어떤 양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부분은 교재 활용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요. ^^

4.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교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과 끝낸 후의 생각은 크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풀다보면, 점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틀린 문제는 쌓여가고, 점점 답은 외워지고, 맞췄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개념을 다 정리하고, 실전에 충분히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확인될 때예요. 아직 개념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해보고, 문제도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틀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맞춘 문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각은 종종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내가 못하는 부분이야.’라는 생각이 나의 능력을 규정짓고 한정짓곤 하죠. 문법은 확실하게만 정리하면 분명히 수능 시험장에서 이후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계속 한 두 문제씩 발목을 잡던 문법이 쉽게 풀리는 순간, 안심이 될 거고 안심하게 되면 그 때부터 내 원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거예요.

“문법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야.”

바람을 확신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힘내요. 언제나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교재 활용법

1. 연필은 잠시 내려주세요.

이 책을 공부하려면, 연필은 잠시 내려주세요. 앞으로 하나하나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지만, 수능이란 과목은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많이 반영되어 개념이 필요한 2016학년도 수능 국어 문법 역시 외우기만 해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될 부분들은 제가 철저하게 필기해 두었고, 교재 전체를 컬러로 제작하여 하나하나 중요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연필은 내려두고, 눈으로 책을 파악하세요. 외워서 떠나는 시험장에서 제 실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떠올릴 수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 결국 1등급을 만들어 냅니다.

자, 이제부터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2. 문법 개념 구조도

이 책은 일반적인 목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법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도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실 수능 국어의 전반적인 부분이 마찬가지로이지만, 문법의 경우 개념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우더라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법 개념 구조도**’는 책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의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법개념구조도①”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24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27
	2-1-2. 운소	장단, 연접, 억양		29
	2-1-3. 음운의 변동		㉠ 음절의 끝소리 규칙	37
			㉡ 비음화	40
			㉢ 유음화	42
			㉣ 구개음화	44
		① 음운의 교체	㉣ 경음화 (된소리되기)	45

이런 구조도는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등장합니다.

“문법개념구조도②”



단원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며 봐야할 지 떠올리며 개념을 잡아보세요. ^^

“문법개념구조도③”



이건, 각 페이지에 실려 있는 표로 개념의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지를 색(노란색)을 통해 나타내고 있죠. 즉, 해당 페이지에는 ‘음운’ 중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의 하위 개념인 ‘음운의 동화’의 종류들 중 ‘자음 동화’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하며 봐도 되고, 개념을 정리한 후에 표를 봐도 좋아요. ^-^

3. 중요도

㉡ 음운의 동화[同化] **중요도 ★★★★★**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자음 단독의 현상을 나타내 주는 규칙임에 비하여, 동화 규칙은 한 음운이 형태소 경계에서 인접하는 다른 음운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도는 이 그림처럼 중요 개념 옆에 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크게 ☆과 ♣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은 수능에 직접 출제되었던 개념 중 중요 개념을 뜻하고, ★의 개수를 통해 빈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는 개념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상 중요 내용인 경우 역시 ♣의 개수로 중요도를 표시했습니다.



<해당 개념 기출 유형>

[2015학년도 9월 A형 11번]

자음의 조음방식

[2015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의 특성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4. 해당 개념 기출 유형

각 개념이 시작하는 맨 처음엔 교육과정과 함께 실제 그 단원에서 기출되었던 문제 유형들을 모두 담아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출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5. 열공 tip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부분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법은 개념이 제일 중요한 데 교재로 독학을 하다보면 궁금한 부분이 넘쳐나게 돼요. 또, 이해하는 방법도 모르고 덮어두고 외우다 보니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개념을 활용할 수도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필요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담았습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꼭 열공 tip을 봐주세요. ^-^

열공 Tip! - 자음체계

자음 체계표는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음운 현상들을 공부하는 동안은 참고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개념을 이해하면 기억력이 훨씬 오래가니까 ^^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를 기준으로 표를 나누어보고,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바닷가 횡집' (안울림 소리 부분), '마니와 라' (울림 소리)의 순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 (크게 말하면 좀 칭피할 수 있음^^;) '바닷가'의 '닷'이라는 글자 안에 '드'와 '스'이 같이 있으니 세로로 같은 위치(같은 혀끝소리)인 것을 확인하면 되고, '횡집'의 '횡' 역시 글자 안에 'ㅎ'과 '스'이 있으니 가로로 같은 위치(같은 마찰음)인 것을 확인하면 돼. 진짜 쉽지? ^^

6. 선생님의 비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중 의도하지 않고 들어간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캐리커처도 마찬가지죠. ^^



먼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 제가 등장하면 중요개념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임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등장하면 꼭 집중해 주세요. ^^



그리고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제가 등장하면 어려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이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개념이 너무 어려우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 주세요. ^^

7. 기출 문제

기출 문제도 의미 없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각 개념을 완벽히 정리한 후, 해당 개념에 관한 기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능은 빨강색, 모의평가는 파랑색, 학력평가는 초록색으로 문제를 구분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바로 어떤 시험의 유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죠. 일부러 문제에는 난이도나 중요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고 분석해야 완벽한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의 모든 문법 문제(비문학 '언어' 문제 포함, 2005학년도 6월·9월·수능부터 2015학년도 6월·9월·수능 & 2014년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 10월까지의 모든 문법 문제)를 실었습니다.

기출 문제 분석은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8. 복습하기

이 책을 보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법 개념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보고 책을 덮어둔 채 시험장으로 간다면 완벽한 점수를 장담할 수 없겠죠. 제대로 공부했다면 복습은 틈날 때마다 조금씩만 해도 부담 없이 문법 점수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각 단원의 끝에는 ‘내가 쓰는 핵심정리’가 있습니다. 이곳도 일부러 제가 직접 핵심정리를 작성하지 않았습다. 자칫 그 부분만 보려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중요도와 핵심 내용들은 본문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단원을 다 공부한 후 중요 내용들을 학생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맨 끝 부분에 지난 ‘2014 · 2015 · 2016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여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은 ‘2014 · 2015 · 2016 수능 국어 1등급 검토진’의 교재후기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직접 검토 작업에 참여하며 자신이 교재를 활용하며 썼던 효율적 방법과 책의 장점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책을 펼치기 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공부하며 틈틈이 마음을 잡기 위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끝으로 전체 개념을 다 잡고, 문제도 다 풀었다면 다시 책의 목차를 펴 보세요.

바로, ‘문법 개념 구조도’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 펼쳐봤던 것과 아주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무의미해 보였던 개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뉘고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법을 완벽히 공부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9. 당부의 말

내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요. 그대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저는 사실 독학으로 내신과 수능을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고1 때 맨 처음 봤던 시험에선 전교 98등에 반 10등을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 성적을 받고도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성적이 오를 거야. 남들이 말하는 대학 정도는 갈 수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그 때 담임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작년 입시 성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들을 목표로 하고 있던 저에게 담임선생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학마저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꿈이 필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아무도 내 꿈에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날 이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제일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 채 공부하는 것이. 매일을 울며 방황하며



그렇게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2학년 첫 중간고사, 드디어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 1등, 전교 1등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저 마저도 믿을 수 없었죠. 그 이후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계속 전교 1자리수 등수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도 그 시절을 회고하면 가슴 한 켠이 아릴만큼 답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니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힘든 것들도 많다, 이런 경험들도 결국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힘들수록 이런 기억들이 여전히 절 버티게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선생님이 당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픔이 될 만큼, 독학이었기에 혼자서 터득하기에 너무 힘들었고, 오래 걸렸던 그 시간, 그 막막함, 그 고통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최대한 그런 시간을 겪지 않고 행복한 수험 생활을 견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제 슬픔은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의 슬픔은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 선생님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짐들은 다 짊어질 테니 우리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며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점수에 맞춰 꿈을 꾸는 학생들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자신의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능 점수는 정직합니다. 자신에게 떳떳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내 현재 점수가 얼마든, 내 현재 위치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그에 맞게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낮은 점수일 때 그 점수에 맞춰 꿈을 꾸려다 좌절하던 학생이 성적이 오른 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꿈들을 꾸고 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힘내요. 이 책이, 제가, 여러분들의 꿈의 실현의 순간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웅장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지 않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니까요. 빙산은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으로 존재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견고하고, 단단한, 아름다운 그대들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문법 개념 구조도

[1] 국어와 얹

1. 언어의 본질

1-1. 언어의 특성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⑤ 언어의 창조성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18
-------------	--	----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22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25
	2-1-2. 운소	장단, 연결, 억양		27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34
			㉡ 비음화	38
			㉢ 유음화	40
			㉣ 구개음화	42
			㉤ 경음화 (된소리되기)	43
			㉥ 전설 모음화	45
			㉦ 두음 법칙	46
		㉧ 사잇소리 현상	47	
	② 음운의 축약	㉠ 자음 축약 (거센소리되기)	49	
		㉡ 모음 축약	49	
	③ 음운의 탈락	㉠ 자음 탈락	① 자음군 단순화 ② 'ㄹ' 탈락 ③ 'ㅎ' 탈락 ④ 두음법칙	51
㉡ 모음 탈락 ('으' 탈락)		54		
④ 음운의 첨가	㉠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55	
	㉡ 반모음 첨가	55		
2-1-4. 기타	① 모음조화 ② 이화		57	
2-2. 단어 (형태론)	2-2-1. 형태소	① 형태소의 종류	㉠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자립 형태소 ㉣ 의존 형태소	72
		② 이형태의 종류	㉠ 음운론적 이형태 ㉡ 형태론적 이형태	74
	2-2-2. 단어	① 단어의 형성	㉠ 어간	78
			㉡ 어미	78
			㉢ 어근	78
			㉣ 접사	① 접두사 ㉠ 파생 접두사 ② 접미사 ㉠ 파생 접미사 ㉡ 굴절 접미사
	② 단어 형성 방식	㉠ 단일어	80	
		㉡ 복합어	①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81
② 파생어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85	

	2-2-3, 품사	① 불변어	㉠ 체언	❶ 명사		95		
				❷ 대명사		95		
				❸ 수사		95		
			㉡ 수식언	❶ 관형사		㉠ 성상 관형사 ㉡ 지시 관형사 ㉢ 수 관형사	103	
				❷ 부사		㉠ 성분 부사 ㉡ 문장 부사	103	
				❶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105	
			㉢ 관계언	❶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105	
			㉣ 독립언	❶ 감탄사		111		
			② 가변어	㉣ 용언	❶ 동사		113	
					❷ 형용사		113	
		㉣-1. 용언의 활용		❶ 선어말 어미		118		
				❷ 어말 어미	㉠ 종결 어미		120	
					㉡ 비종결 어미	㉣-1. 연결어미	㉠ 대등적 연결 어미 ㉡ 종속적 연결 어미 ㉢ 보조적 연결 어미	120
						㉣-2. 전성어미	㉠ 명사형 전성 어미 ㉡ 관형사형 전성 어미 ㉢ 부사형 전성 어미	120
					2-3. 문장 (통사론)	2-3-1. 문장의 성분	① 주성분	㉠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② 부속성분	㉠ 관형어 ㉡ 부사어		149			
		③ 독립성분	㉠ 독립어		149			
			2-3-2. 문장의 구조	① 흘문장			154	
				② 겹문장	㉠ 안은 문장	❶ 명사절을 안은 문장 ❷ 서술절을 안은 문장 ❸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	❹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 ❺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155
					㉡ 이어진 문장	❶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❷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57
2-3-3. 국어 문법 범주	① 종결 표현			㉠ 평서문			166	
		㉡ 명령문		❶ 직접 명령문 ❷ 간접 명령문				
		㉢ 청유문						
		㉣ 의문문		❶ 판정 의문문 ❷ 설명 의문문 ❸ 수사 의문문				
		㉤ 감탄문						
	② 높임 표현	㉠ 주체 높임법		❶ 직접 높임 ❷ 간접 높임	171			
		㉡ 객체 높임법						
		㉢ 상대 높임법	❶ 격식체	㉠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 (예사높임) 하오체 ㉢ (예사낮춤) 하게체 ㉣ (아주낮춤) 해라체				
			❷ 비격식체	㉠ (높임) 해요체 ㉡ (낮춤) 해체				
	③ 시간 표현	㉠ 시제		❶ 과거 시제 ❷ 현재 시제 ❸ 미래 시제	178			
		㉡ 상		❶ 진행상 ❷ 완료상	180			
	④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❶ 파생적 피동문 ❷ 통사적 피동문	185			
㉡ 사동 표현		❶ 파생적 사동문 ❷ 통사적 사동문	186					
⑤ 부정 표현	㉠ '안' 부정문		❶ 긴 부정문 ❷ 짧은 부정문	193				
	㉡ '못' 부정문		❶ 긴 부정문 ❷ 짧은 부정문					

2-4. 담화 (화용론)	2-4-1. 담화의 개념	① 발화	㉠ 직접 발화 ㉡ 간접 발화	200
		② 담화의 구성요소	㉠ 화자 / 청자 ㉡ 발화(내용) ㉢ 장면(맥락)	202
	2-4-2. 담화의 종류 및 기능	① 정보 제공 담화 ② 호소 담화 ③ 약속 담화 ④ 사고 담화 ⑤ 선언 담화		203
	2-4-3. 담화의 표현	① 지시 표현 ② 대응 표현 ③ 접속 표현		204
2-5. 의미 (의미론)	2-5-1. 의미의 종류	① 개념적 의미	㉠ 다의어 ㉡ 동음이의어	214
		② 내포적 의미 ③ 사회적 의미 ④ 정서적 의미 ⑤ 반사적 의미 ⑥ 언어적 의미 ⑦ 주제적 의미		218
	2-5-2. 의미의 성분 분석			220
	2-5-3. 단어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상하 관계 ④ 부분-전체 관계		222
	2-5-4. 문장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중의적 문장과 모호한 문장		224

[2] 국어와 규범

1. 정확한 발음	1-1. 표준 발음과 표준어	① 표준 발음법 ② 표준어	248
	2-1. 한글 맞춤법		263
2. 올바른 단어 사용	2-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① 외래어 표기법 ② 로마자 표기법	268
	3-1. 정확하지 않은 문장의 구분		293
3. 정확한 문장 표현	3-2. 자연스러운 문장의 요건	① 문법성 ② 적절성	294
	4-1. 표준 화법과 언어 예절		312

[3] 국어와 열

1. 국어의 변천	1-1. 국어가 걸어온 길	① 국어의 계통	㉠ 국어의 형성 ㉡ 국어사의 시대구분	316	
		① 음운의 변천	㉠ 자음의 변천 ㉡ 모음의 변천 ㉢ 성조	318	
	1-2. 국어의 변천	② 표기·문법의 변천	㉠ 고대 국어 ㉡ 중세 국어 ㉢ 근대 국어	320	
		③ 어휘의 변천		326	
	1-3.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① 한글의 창제	㉠ 훈민정음 제자원리	① 초성 제자원리 ② 중성 제자원리 ③ 종성 제자원리	342
	1-4. 선인들의 국어 생활			346	

[1] 국어와 읽

1. 언어의 본질

1-1. 언어의 특성

1-1. 언어의 특성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⑤ 언어의 창조성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해당 개념 기출 유형>

[2006학년도 9월 40-43번 비문학 (언어)]

언어와 인간 심리의 상관성

열공 Tip! - 언어의 특성

문법만 묻는 문제에서 출제된 적은 없지만^^;; 교육과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개념을 알아둘 필요는 있어. 간단하게 예시들을 참고해서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숙지할 수 있으니 한 번만 정리해 두자. ^^ 특히, 언어의 특성 중 중요도에 ♣이 있는 것은 출제된다면 헛갈릴 수 있는 개념이니 꼭 볼 것



1-1. 언어의 특성

-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 ⑤ 언어의 창조성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1-1. 언어의 특성 중요도 | ♣♣♣♣♣

교육과정

언어의 특성

- ㉗ 언어의 기호적, 규칙적, 창조적 특성을 이해한다.
- ㉘ 언어의 사회적, 역사성을 이해하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실례를 탐구하여 설명한다.

• ㉗, ㉘-해설 | 언어의 특성은 교육과정에 포함된 기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수능에서 이 부분을 다룬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히 개념을 정리한 후 다른 파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언어의 기호성

: 언어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의미라는 내용적 요소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성이나 문자로서의 형식적 요소인 기호로 표기되어야 해요. 이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예) 꽃이라는 식물(실제의 의미) - ‘꽃’(한글로 표기된 형식)

② 언어의 자의성 중요도 | ♣♣♣♣♣

: 자의성은 언어의 기호성에서 파생되는 개념입니다. 언어가 기호로 표현되는 데 있어 내용과 의미와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특성이죠. 각국의 언어마다 표기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예에 해당돼요.
예) 꽃이라는 식물 - 한국 : 꽃, 미국 : flower로 표기

③ 언어의 규칙성

: 언어 현상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 모든 문법 단위가 각각의 체계를 이루어 조직되는 점이 모두 일정한 규칙에 해당되죠.
예) 나는 밥을(○), 밥를(×) 먹었다.

④ 언어의 체계성

: 규칙성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각각 문법 단위들 간에 일정한 체계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규칙성에 비해 체계성은 문장 단위 이상의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말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같은 문법적 특성을 말합니다.)



⑤ 언어의 창조성 중요도 | 🍀🍀🍀🍀🍀 <

: 한정된 단어로 무한한 단어와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주의 할 점은, 없던 단어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단어에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예) 나는 낮에 밥을 먹는다. 아이는 잠을 잔다. → 나는 낮에 잠을 잔다.
이처럼 두 문장만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을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⑥ 언어의 사회성 중요도 | 🍀🍀🍀🍀🍀

: 언어는 사회적 약속체계이므로, 개인이 사회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언어를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지우개’를 ‘김치’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지우개’를 ‘김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⑦ 언어의 역사성 중요도 | 🍀🍀🍀🍀🍀 <

: 사회가 변하듯, 언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크게,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생성은 없던 개념을 서술할 새로운 단어를 말하며, 발전은 의미 변화, 소멸은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방송(放送)은 현재는 방영을 의미하지만, 과거에는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주던 일’을 의미했어요. 세월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죠.

열공 Tip! - 언어의 창조성과 언어의 역사성

‘창조성’이란 어감 때문인지 단어의 생성을 ‘창조성’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어의 생성은 ‘역사성’(없던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창조성’은 한정된 단어 내에서 새로운 문장들을 무한히 만들어 내는 언어의 특성(기존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내가 쓰는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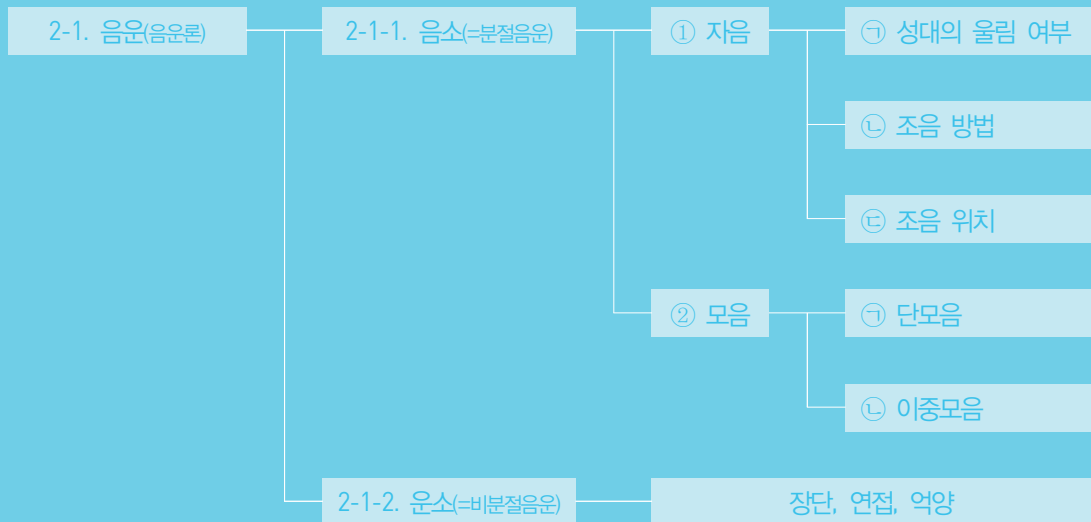
핵심

정리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2-1-1. 음소 & 2-2-2. 운소





<해당 개념 기술 유형>

- [2015학년도 9월 A형 11번]
자음의 조음방식
- [2015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의 특성
-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4학년도 예비수능 A형 11번]
음운의 개념
- [2012학년도 수능 40-42번 비문학 (언어)]
한글의 표음성
- [2011학년도 9월 12번]
'겹받침'의 표준 발음 분석
- [2010학년도 수능 30-31번 비문학 (언어)]
음운의 변별적 자질
- [2008학년도 수능 31-33번 비문학 (언어)]
개구도(開口度)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특징
- [2005학년도 수능 44-47번 비문학 (언어)]
문자 발달사에 따른 문자의 장단점과 한글의 문자적 특징 - 그림 문자,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음운 문자, 음절 문자, 자질 문자

열공 Tip! - 음성과 음운의 비교

음성은 발음 기관을 통해 발음되는 모든 소리를 통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야. 즉, 순간적이고 무의미한 단순한 의성어들도 모두 음성에 포함되는 것에 반해 음운은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소리를 말하지.

2-1. 음운	2-1-1. 음소	① 자음	② 모음
------------	--------------	------	------

2. 국어의 구조 중요도 | ★★★★★☆

2-1. 음운

-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미의 차이를 내는 최소의 문법 단위)
- ex) 말 || 발 → ‘ㄹ’과 ‘ㄴ’의 차이, 즉 ‘자음’의 차이로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자음은 음운에 해당됩니다.
- 말 || 물 → ‘ㅌ’와 ‘ㅓ’의 차이, 즉 ‘모음’의 차이로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모음은 음운에 해당됩니다.
- 말 || 말: → 소리의 길고 짧음, 즉 ‘소리의 장단’으로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소리의 장단도 음운에 해당됩니다.

음 운	
음소 (=분절음운)	운소 (=비분절음운)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며 의미 분화를 일으키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 예) 자음과 모음	언어음의 고저, 강세, 음장이나 억양, 말이 끊어지는 것 등으로 말의 뜻이 분화될 때 이들을 운소라 정의.



2-1. 음운	2-1-1. 음소	① 자음	② 모음
------------	--------------	------	------

2-1-1. 음소(=분절음운) 중요도 | ★★★★★☆

① 자음(1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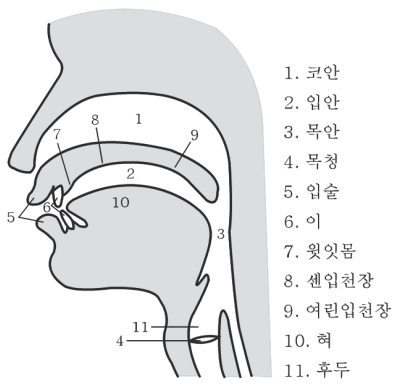
: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조음 기관을 통과하는 과정 중 기류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ㅊ ㅌ ㅍ ㅑ ㅓ ㅕ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혀끝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ㅌ		ㅋ	
		거센소리	ㅍ	ㅈ		ㆁ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파찰음	예사소리		ㅈ		
울림소리	비음	유음	ㅇ	ㄴ		ㅇ	
				ㄹ			

[자음 체계]



[조음 기관의 모양]

열공 Tip! - 자음체계

자음 체계표는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음운 현상들을 공부하는 동안은 참고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개념을 이해하면 기억력이 훨씬 오래가니까 ^^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를 기준으로 표를 나누어보고,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바닷가 횃집' (안울림 소리 부분), '마니와라' (울림 소리)의 순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 (크게 말하면 좀 참피할 순 있음^^;)

'바닷가'의 '닷'이라는 글자 안에 'ㄷ'과 'ㅅ'이 같이 있으니 세로로 같은 위치(같은 혀끝소리)인 것을 확인하면 되고, '횃집'의 '횃' 역시 글자 안에 'ㅎ'과 'ㅅ'이 있으니 가로로 같은 위치(같은 마찰음)인 것을 확인하면 돼. 진짜 쉽지? ^^

골치 아픈 표를 이렇게 깔끔하게 외우고 나면, 앞으로 음운 변동 현상들의 체계가 쉽게 잡힐 거야. 선생님만 믿어. ^^ 선생님도 널 믿으니까.





열공 Tip! - 소리의 특징

소리의 특징은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이해해도 돼. 이걸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들이니까. ^^ (기억이 나아할 텐데... 짬:)

수능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개념이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음운 현상들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

만약 이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 알았지? ^^ 수능 끝나고 하면 다 소용없으니, www.facebook.com/yuhyunju.teacher 나 cafe.naver.com/youteacher 로 써서 와도 되고, 검색엔진에 '유현주' 만 써도 돼. 선생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

(사진은 실물과 다르니 이름이 같다 싶으면 선생님 맞으니까 놀라지 말고^^)

㉠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

- ㉡ 울림소리 (성대 울림)
- ㉢ 안울림소리 (성대 안울림)

㉣ 조음 방법에 따라

- ㉤ 파열음 : 혀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 마찰음 :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 파찰음 :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처음에는 파열음, 나중에는 마찰음의 순서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
- ㉧ 비음 : 목젖을 내려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 유음 :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 조음 위치에 따라

- ㉤ 입술소리 :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혀끝소리 : 혀 끝과 윗잇몸이 맞닿아 나는 소리
- ㉦ 센입천장소리 : 혀바닥과 경구개, 즉 굳은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여린입천장소리 :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목청소리 : 성문, 즉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2-1. 음운	2-1-1. 음소	① 자음	② 모음
------------	--------------	------	------

② 모음(단모음 10개 + 이중 모음 11개)

: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조음 기관에서 기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으며 만들어지는 소리. 모음은 음절의 핵을 이루고, 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혀의 앞뒤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꺄	ㅡ	ㅓ
중모음	ㅕ	ㅛ	ㅜ	ㅛ
저모음	ㅗ		ㅜ	

[단모음 체계]

열공 Tip! - 음절의 핵

'음절의 핵'이란 말은 모음이 그만큼 음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음이 없는 음절은 있을 수 있지만, 모음이 없는 음절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말에선 모음의 개수가 음절의 개수와 일치한다고 보면 돼.

열공 Tip! - 모음

모음은 단모음, 이중 모음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 단, 이 때 '반모음'은 이중 모음에 포함되는 개념이란 것을 명심할 것! 자꾸따로따로 구분하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주의하자!!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ㅛ ㅜ ㅠ ㅡ ㅣ ㅗ ㅛ ㅜ ㅠ ㅡ ㅣ ㅗ ㅛ ㅜ ㅠ ㅡ ㅣ
-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 단모음

: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그 발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소리를 갖는 음운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4항》
'ㅏ ㅑ ㅓ ㅕ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㉞ 이중 모음

: 소리를 내는 도중 입술이나 혀가 움직여 입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음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음.

① 반모음 : 본래 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혀가 입천장 쪽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어 실제로는 이중 모음으로 실현됩니다.

1) 반모음 'y'(ㅣ) + 단모음 = 이중모음 →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2) 반모음 'w'(ㄴ/ㄷ) + 단모음 = 이중모음 → ㅘ, ㅙ, ㅚ, ㅜ, ㅠ

3) 이중모음 (-)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5항》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 → 가저[가저] 찌어 → 쨌[쨌] 다치어 → 다처[다처]

다만 2. ‘예, 레’ 이외의 ‘κει’는 [케이]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게:집] 시계[시계/시계](時計)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널리리 닝크 무늬 띄어쓰기 씌어 툇어 희어 희엿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웨]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협비/협비] 강의의[강:의의/강:이에]

-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2-1.
음운

2-1-2.
운소

① 장단 ② 연접 ③ 억양

2-1-2. 운소(=비분절음운) 중요도 | ♣♣♣♣♣

: 운소는 음소와 마찬가지로 뜻을 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음운에 포함 되죠. 다만, 음소와 달리 표기의 차이나 발음의 차이가 없이 운율적 특성으로만 실현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① 장단

: 국어의 대표적 비분절 음운. 장단의 문제는 모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음절 단위에서 실현됩니다.

예) 눈:[雪]-눈[眼], 말:[言]-말[馬]

길게 발음하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고, 짧게 발음하는 눈은 '신체의 일부인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드물고, 발음의 차이가 없어 뜻을 분화하는 역할은 하지만, 확연하게 나뉘지 않아 '비분절음운'이란 표현이 쓰이게 되었어요.

② 연접

: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킬 때 휴지[休止](쉬어가는 곳)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句)가 되기도 하고 단어가 되기도 하면서 의미의 변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 난 + 운다 - 나눈다 잘 + 안다 - 자란다

단어 사이의 호흡을 연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내가 우는 것'인지 '분배하는 것'인지의 의미로 분화됩니다.

③ 억양

: 문장의 끝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아니면 보통의 어조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 밥 먹어 ↘ 밥 먹어 ↗ 밥 먹어 →

같은 말이지만 억양에 따라 밥 먹을 것을 대답하거나 물어보거나 명령하는 경우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공 Tip! - 운소

운소는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야. 그렇지만, 운소가 무엇인지, 해당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교육과정에 포함되니 기억해 줘야 하겠지?^^ 기본적인 것들이 기억 안날 땐 정말 많이 떨리거든. 기본기는 차곡차곡!!

열공 Tip! - 구, 단어

구와 단어의 개념은 '통사론'에서 다시 다루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토닥토닥 ^^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밤나무[밤:나무] 많다[만:타]
- (2) 첫눈[첫:눈] 참말[참:말] 쌍동밥[쌍:동밥] 수많이[수:마니]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 바:늑/반:신 바:니] 재삼재사[재:삼 재: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 보아 → 봐[봐] 두어 → 뒤[뒤] 기어 → 겨[겨] 하여 → 해[해]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찌, 치어 → 처’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신다[신:따]—신어[시:너]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끝다[끝:다]—끝어[끄:러] 벌다[벌:다]—벌어[바:러]
- 없다[업:따]—없으니[업:쓰니] 뺏다[떨:따]—뺏은[떨:븐]
- 썰다[썰:다]—썰어[씨:러]

-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감다[감:따]—감기다[감:기다] 밟다[밥:따]—밟히다[발:피다]
- 꼬다[꼬:다]—꼬이다[꼬: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업:쌌다]

[붙임] 다음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 없이 짧게 발음한다.

-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의 길이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보 기 > —

학 생 :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위치 조음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임는]’, ‘뜯는[퉁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 료 > —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

11.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table border="1"> <tr> <th colspan="2">눈</th> </tr> <tr> <th>길게 발음 할 때</th> <th>짧게 발음 할 때</th> </tr> <tr> <td>눈이 평평 내린다.</td> <td>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 할 때	짧게 발음 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 할 때	짧게 발음 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1.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최고점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입의 개폐)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반개모음)	ㅑ	ㅓ	ㅕ	ㅗ
저모음(개모음)	ㅕ			

철수 : 영희야, 넌 ‘게’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① ‘개’를 발음할 때는 ‘게’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 해.
- ②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 ③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 ④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 ⑤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내가 쓰는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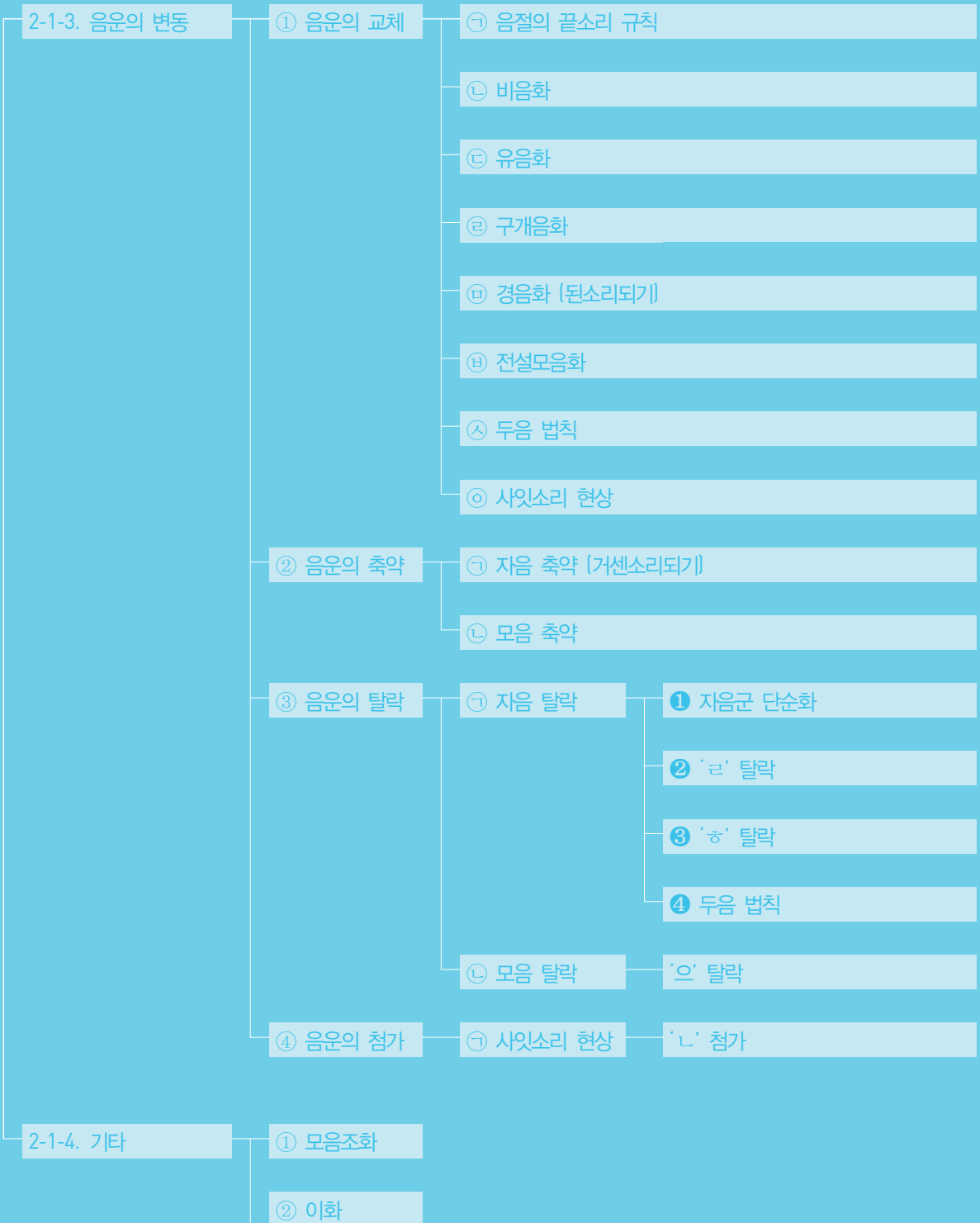


핵심

정리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 2-1-4. 기타





<해당 개념 기술 유형>

[2016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6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6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모음의 변동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 끝소리 규칙

[2011학년도 9월 12번]

표준 발음의 원리

열공 Tip! -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은 ‘음운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 다섯 개 보이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들은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까!

각각의 문법 현상들을 이해한 후 그 현상들이 포함되는 변동의 범주를 분류해서 공부해야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이제 조금 긴장하고, 집중!!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시옷소리 현상			

2-1-3. 음운의 변동 중요도 | ★★★★★

: 한 음운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환경에서 연결되는 말에 따라 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 ‘**발음의 편의**’ 또는 ‘**표현의 명확성**’을 목표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를 염두하며 개념을 정리하면 좀 더 쉽게 개념을 체계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2015학년도 수능 B형의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11번 문제의 기본 원리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므로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음운의 변동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봅시다!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① 음운의 교체[交替](대치)

: 특정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

이외의 자음들은 음절 끝에 오게 되면 이들 가운데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의외로 실수하는 개념이니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표준 발음법 中 ‘예외’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 받침 중요도 | ★★★★★☆

종류	예
ㄱ, ㅋ → [ㄱ]	닭다 → [닥따], 키읓 → [키읓]
ㅅ, ㅆ, ㅈ, ㅊ, ㅌ, ㅎ → [ㄷ]	웃 → [웁], 있다 → [인따], 낮 → [납], 꽃 → [꼇], 술 → [순], 히읃 → [히읃]
ㅍ → [ㅍ]	잎 → [입]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ㅍ]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열공 Tip! - 음절 끝소리 규칙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지, 그리고 아 이러니하게도 시험에는 ‘예외’가 훨씬 많이 출제되고...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자꾸 어려운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예외를 알기 위해선 기본 개념이 완벽히 잡혀 있어야 하니까 고난도 문제로 수준을 올리기 위해선 바로 이 ‘예외’적인 부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

특히, 받침 중 ‘ㄱ’같이 자음에 포함되는 음운은 ‘교체’로 구분하고, ‘ㄱ’같이 두 개의 자음이 합쳐진 음운에서 받침에 일어나는 현상은 ‘탈락’으로 구분하는 건 많은 학생들이 혼동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잘 체크해 뒤. 파이팅!!



열공 Tip! -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갑자기 '형태소'가 나와서 긴장했지?
(뜨끔한 사람 손!!)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형태소는 뒤의 '형태론' 파트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거야.
간단하게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보면 돼. ^^

㉠ 2음절 이상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의 결합

종 류	예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후행	옷 안 → [오단], 잎 위 → [이뷔], 부엌 안 → [부어간], 나뭇잎 → 나뭇닙 → [나문닙]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후행	읽어 → [일거], 밭아 → [밭바], 웃이 → [오시], 별이 → [벼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까] 웃이[오시]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굶이[골씨] 없어[업:씨] 앉아[안자] 활아[할타]
닭을[달글] 읊어[을퍼] 젊어[절머] 값을[갑슬]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헛웃음[허두슴]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근이[디그시] 지웃이[지으시] 치웃이[치으시] (중략)
디근을[디그슬] 지웃을[지으슬] 치웃을[치으슬] (중략)
디근에[디그세] 지웃에[지으세] 치웃에[치으세] (중략)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 자음 동화 **중요도 | ★★★★★**

: 특정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우리말은 자음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지만 자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변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때, 자음이 변동하는 이유는

크게

- 1) 발음의 편의
- 2) 표현의 명확성

이에요. 이제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말 그대로 불편한 발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동하거나 발음은 불편하지 않는데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변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음운의 변동에는 들어가지지만, 표준 발음법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원리를 이해하며 기억해 주세요.



열공 Tip! - 음운의 동화

동화[同化] 현상은 크게 '교체'에 포함되는 현상이야. 머릿속에 앞에 나온 변동의 핵심 개념 범주를 그려놓고, 거기에 개념들을 채워 나가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어.

국어에서, '화[化]'라는 말이 쓰이게 되면 이제 기억해 두자. '~이 되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음 동화'라고 하면 '같지 않았던 자음'이 '같게 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되는거지.

이렇게 이해를 한 후,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되면 절대로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을거야. ^^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열공 Tip! - 비음화

‘비음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야. 기본적으로 안올림 소리와 올림 소리가 만나면 발음하기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편리한 발음을 위해 안올림 소리가 올림 소리로 바뀌는데, 표에 나온 것처럼 마찰음과 파찰음은 비음과 대응되지 않잖아. 즉, 안올림 소리 중에는 ‘비음’과 대응되는 것이 ‘파열음’밖에 없으니까 ‘ㄱ, ㄷ, ㅂ’이 변동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운데, ^^ 이걸 외우면 골치 아프잖아. 그치?

이 때, 각각의 음운들도 아무렇게나 변동하는 게 아니고, 각각 조음 위치에 맞춰 ㅁ으로, ㄴ으로, ㄹ으로 발음되는 거야. 정리 끝!

㉡ 비음화 [鼻(코-비)音(소리-음)化(뉘-화)] (안올림 vs 올림)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비음화 ①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변하는 현상

예) 밤물 → [밤물], 섭리 → 섭니 → [섭니]

국민 → [궁민], 국물 → [궁물]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ㆁ), ㄷ(ㄷ, ㅌ, ㅍ, ㅍ, ㅎ), ㅂ(ㅂ, ㅃ,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단는[단는] 밤물[밤물]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옷 맞추다[온맏추다]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ㅃ		ㄱ		
		된소리	ㅃ	ㅃ		ㄱ		
		거센소리	ㅍ	ㅍ		ㅋ		
	마찰음	예사소리	비음화 ①	비음화 ㅅ ㅆ		비음화 ㄱ	비음화 ①	ㅎ
		된소리						
		예사소리			ㄷ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ㄴ	비음화 ②			

[비음화의 원리]

비음화 ②

: 유음인 'ㄴ'이 비음인 'ㄴ'으로 변하는 현상

예) 공로 → [공노], 박람회 → [박남회] → [방남회]

백로 → [백노] → [뱅노]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ㄴ'은 [ㄴ]으로 발음한다.

답력[답:넉] 침략[침냐] 강릉[강능]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ㄴ'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 백리[백니] 협력[협녁] → 협녀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열공 Tip! - 유음화

유음화 현상은 울림 소리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것도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야. '신라'를 발음해 보면 되게 힘들거든.

원리는 같은 조음 위치(혀끝소리) 상의 'ㄴ'외의 음운들(ㄷ, ㅌ, ㅌ, ㅍ, ㅍ)은 이미 비음화를 거쳐 'ㄴ'으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음운은 변할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문법 현상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며 생각하면 정말 쉬울 거야. 쉬워져라. 쉬워져라. 행복해져라. 파이팅!

→ ㉢ 유음화 [流(흐름-류)音(소리-음)化(변-화)] (울림 vs 울림)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 비음 'ㄴ'이 유음 'ㄹ'을 만났을 때(앞이나 뒤 모두)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 → [실라], 칼날 → [칼랄], 앓는 → [알는 → 알른]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ㅍ		ㅍ	
		된소리	ㅃ	ㅍ		ㅍ	
		거센소리	ㅍ	ㅌ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유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20항》

‘ㄴ’은 ‘ㄷ’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 (1) 난로[날:로] 천리[철리]
- (2)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ㅍ’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달는[달른] 풀는[풀른] 할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ㄷ’을 [ㄴ]으로 발음한다.

- | | | | |
|-----------|-----------|-----------|----------|
| 의견란[의:견난] | 결단력[결단녁] | 상견례[상견네] | 입원료[이웬노] |
| 임진란[임:진난] | 공권력[공권녁] | 횡단로[횡단노] | 구근류[구근뉴] |
| 생산량[생산냥] | 동원령[동:원녕] | 이원론[이:원논] | |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열공 Tip! - 구개음화

구개음화 현상은 경구개음(센입천장 소리)이 아닌 ‘ㄷ, ㅌ’이 ‘ㅣ’ 모음이나, 반모음 ‘ㅇ(ㅣ)’를 만나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해, 즉, 다른 동화 현상과 달리 자음과 모음의 충돌이야. 앞 자음은 실질 형태소이고, 다음에 이어지는 형식 형태소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ㄷ, ㅌ’이 ‘ㅣ’ 모음을 만나면 허끝소리부터 여린입천장소리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ㄷ, ㅌ’을 ‘ㅈ, ㅊ’으로 이동하게 되면 허끝소리만큼 이동거리가 절약되어 발음이 훨씬 수월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구개음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구개음이 아닌 음운’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 **구개음화** [口(입-구)蓋(천장-개)音(소리-음)化(변-화)]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ㅣ)’(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굳이 → [구디 → 구지], 굳히다 → [구티다 → 구치다]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허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올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ㅌ		ㄲ	
		거센소리	ㅍ	ㅊ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거센소리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절약)	ㅊ			
	거센소리			ㅉ			
올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구개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굳이[구지] 발이[바치]

[붙임] ‘ㄷ’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 **경음화**(=된소리되기)[(硬音)(경음-된소리)化(뮐-화)] (안울림 vs 안울림 / 울림 vs 안울림)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발생]

: 두 개의 안울림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울림과 안울림이 만나는 경우도, 울림으로 바뀌어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도 경음화가 일어납니다.

예) 국밥 → [국뺨], 역도 → [역또], 입고 → [입꼬]

신고 → [신꼬], 넓게 → [넉께], 할 것을 → [할꺼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ㄹ), ㄷ(ㄷ, ㅌ, ㄹ), ㄷ(ㄷ, ㅌ,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ㄷ,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뺨] 뺨대다[뺨때다] 곱돌[곱똥]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ㄷ,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꺾안다[꺾안따] 앓고[안꼬] 었다[언따]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25항》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ㄷ,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넓게[넉께] 훔다[할따] 훔소[훔쏘]

《제26항》

한자어에서 ‘ㄹ’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ㄷ,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또]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열공 Tip! - 경음화

경음화 현상은 발음의 편의와는 거리가 있어, 안울림 소리끼리 충돌하게 되면, 발음이 모두 불편해지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울림 소리로 바뀌버리게 되면, 의미가 불분명하게 되거든.

그래서, 경음화는 발음의 편의를 포기하고, 대신 ‘표현의 명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원래 음운보다 더 어려운 발음을 하게 된 거야.

예를 들어, ‘신고’를 발음의 편의에 따라 발음하면 ‘신오’가 되잖아. (앞에 표 생각나지? 벌써 기억 안 나면 안돼. ㅠ ㅠ) 이렇게 되면, 의미가 아예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발음의 편의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더 불편하지만 차라리 의미라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야. 원리를 강조하는 이유 이제 좀 이해되니?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겘] 할수록[할쑤록] 할진대[할찐대]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표준 발음법 제6장 된소리되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2. ‘ㅎ(ㄴㅎ, ㄹ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당소[다ㅆ] 많소[만ㅆ] 싫소[실ㅆ]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 전설 모음화('ㅣ'모음 역행동화) 중요도 | ♣♣♣♣♣♣ ←

: 앞 음절의 후설모음 'ㅏ, ㅑ, ㅓ, ㅕ'가 뒤 음절에 전설 모음인 'ㅣ'가 오면 이에 끌려서 전설 모음 'ㅐ, ㅑ, ㅖ, ㅗ, ㅣ'로 변하는 현상.

표준 발음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고기 → [괴기], 어미 → [에미]

열공 Tip! - 전설모음화

전설모음화 역시 '화'를 기억하면 쉬울 거야. 전설모음이 아닌 음운, 즉 후설 모음이 'ㅣ'모음을 만나 전설 모음이 되는 현상이거든.

그렇지만, 모음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지 않는 방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점은 유의해야 해.

혀의 앞뒤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ㅑ ←		ㅕ
중모음	ㅑ ←		ㅑ	ㅓ ←
저모음	ㅐ ←	ㅖ ←		ㅓ

[전설모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ㄴ : -나기, 남비, 동당이-치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제2절 모음

12 단어의 구조 파악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①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단어로 ‘뛰어가다’와 같은 구성을 보이는 단어는 ‘돌아서다’이다. ‘돌아서다’는 ‘돌다’의 어간인 ‘돌-’에 연결어미인 ‘-아’가 결합된 후 ‘서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① ‘꿈꾸다’는 ‘꿈’이라는 체언에 ‘꾸다’라는 용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뒤섞다’는 ‘몹시, 마구, 온통’을 뜻하는 접두사 ‘뒤-’에 용언 ‘섞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빛나다’는 ‘빛’이라는 체언에 ‘나다’라는 용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오르내리다’는 ‘오르다’라는 용언의 어간인 ‘오르-’와 용언 ‘내리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①과 달리 ‘오르내리다’는 연결 어미가 생략되었다.

[37-39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현재 수용되는 개념 제시)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였다.
중간	2문단	(선행 개념 부연)	↓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를 경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국어
	3문단	(개념 심화 적용)	↓ 구를 만드는 방법은 합성어에도 적용 가능
	4문단	(유형 분류)	- 따를 경우, 통사적 합성어[분류] - 따르지 않을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분류]
끝	5문단	(현재 수용되는 개념의 정립 배경 밝힘)	↓ 비통사적 합성어(두더지) 중 어형변화가 이루어지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됨

주제 : 한글이 지닌 문자적 특징과 의의

37 사실적 사고 (세부 내용 확인) 【정답 ⑤】

(정답 해설) 5문단을 보면, ‘두더지’의 어형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 나와 있어 적절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두더지’는 본래 합성어였는데, 현재 단일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분류 기준은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랐는지 여부이다. 본문의 예로는 모두 2단어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④ ‘숫돌’은 형태변화와, 품사의 소멸을 겪었다.

38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귀엣말’은 ‘귀(체언)+에(부사격조사)+ㅅ(관형격조사)+말(체언)’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15세기 국어의 ‘거우루엣 그르멜’과 유사한 구성으로 이를 분석하면, ‘거우루(체언)+에(부사격조사)+ㅅ(관형격조사)+(제) +그르멜(체언)’이 된다. 그러므로, ‘엣’은 ‘에+ㅅ’이기 때문에 오늘날 부사격조사 ‘에’의 역할과 관형격조사의 역할 모두를 한다고 봐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정답 해설을 참고하면, 둘이 동일한 구조로 분석됨을 알 수 있다.

② ‘제’를 제거하면 ‘귀엣말’과 ‘거우루엣 그르멜’은 같은 짜임을 보이므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③ ②의 설명을 거꾸로 적용하면, ‘제’를 ‘귀엣말’에 넣어 ‘귀엣 제 말’과 같은 구성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⑤ ‘귀엣말’은 현재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아 비통사적 합성어에 분류된다. 그러나, 15세기였다면 구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9 창의적 사고 (새로운 개념의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㉔의 ‘오르내리다’는 용언 어간인 ‘오르-’와 ‘내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비통사적 합성어를 만들면 용언 어간인 ‘읽-’과 ‘갈무리하-’가 결합하여 ‘읽갈무리하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용언의 연결 어미인 ‘-어’를 넣었기 때문에 오답이 된다.

(오답 해설) ① ㉔의 ‘호두과자’는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형태이다. ‘가락(체언)’과 ‘연필(체언)’의 결합도 이에 해당한다.

② ㉔의 ‘된장’은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형태이다. 즉, ‘된’은 ‘되다’의 용언의 어간이 ‘장’을 꾸미면서 관형사형 어미인 ‘-’과 결합하여 용언의 관형사형이란 말이 붙게 되었다. ‘빼빼한연필’ 역시 용언의 어간(빼빼하-)이 ‘연필(체언)’을 꾸며 관형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가 된다.

④ ㉔의 ‘땃상’은 용언 어간(땃-)에 체언(상)이 직접 결합한 형태이다. ‘부드럽다’의 어간은 ‘부드럽-’이고, 체언인 ‘국수’가 결합한 것이 ‘부드럽국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된다.

⑤ ㉔의 ‘어둑새벽’은 독립적이지 않은 어근과 체언이 결합한 형태이다. 어근은 실질형태소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새큼달큼하다’라는 단어에서도 실질적 의미는 ‘새큼달큼-’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국수’를 결합한 ‘새큼달큼국수’는 적절한 예이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B형 공통 15번] - 파생어의 형성[파생접사의 쓰임] (본문 p.86)

15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를 사용하였는데, <보기>에서도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된다.

(오답 해설)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행지기’에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데, ‘산꾸러기’는 산을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하지 소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③ ‘노래꾸러기’는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꾸러기’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농담장이’는 농담을 많이 하는 것이지 기술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 파생어의 의미[접사의 의미 차이] (본문 p.86)

12 어휘·어법 (개념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뒹대다’는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를 뜻하고, 이때 ‘뒹-’의 의미는 ‘겹쳐’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치뜨다’는 ‘눈을 위쪽으로 뜨다’를 의미하고, 이때 ‘치-’는 ‘위로’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③ ‘들끓다’는 ‘한곳에 여럿이 많이 모여 수선스럽게 움직이다’를 의미하고, 이때 ‘들-’은 ‘마구’, ‘몹시’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④ ‘되감다’는 ‘도로 감거나 다시 감다’를 의미하고, 이때 ‘되-’는 ‘도로’, ‘다시’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⑤ ‘휘젓다’는 ‘골고루 섞이도록 마구 젓다’를 의미하고, 이때 ‘휘-’는 ‘마구’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2008학년도 수능 11번] - 파생어의 의미[접사의 의미 차이] (본문 p.87)

11 어휘 · 어법 (어휘 의미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싸움질하다’의 접미사 ‘-질’은 ‘그런 일 또는 그런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그러므로, ‘심하게’라는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 파생어의 이해 (본문 p.88)

12 어휘 · 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읽히다’는 동사 어간 ‘읽-’에 피동 접사인 ‘-히-’가 붙어 바뀐 단어이다. 그렇지만, ‘읽히다’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동사인 품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㉔에 해당하는 예이다.

- (오답 해설) ① 명사 ‘멋’에 접사 ‘-쟁이’가 붙으면 그대로 명사 ‘멋쟁이’가 되므로 ㉑에 해당한다.
- ② 접사 ‘새-’와 형용사 ‘파랗다’가 결합하면 그대로 형용사 ‘새파랗다’가 되므로 ㉑에 해당한다.
- ③ 동사 ‘지우다’의 어간과 접사 ‘-개’가 결합한 ‘지우개’는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으므로 ㉔에 해당한다.
- ④ 능동을 의미하는 동사 ‘열다’에 피동 접사 ‘-리-’를 결합한 동사 ‘열리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㉔에 해당한다.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별 (본문 p.89)

13 어휘 · 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밑줄 친 부분은 파생어 형성에 관한 설명이다. ①의 ‘강마르다’는 ‘호된’ 또는 ‘심한’의 뜻을 지닌 접두사 ‘강-’(특별한 의미)과 ‘마르다’(실질적 의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므로, 적절한 예가 된다.

- (오답 해설) ② ‘첫사랑’은 ‘첫’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이다.
- ③ ‘새색시’는 ‘새’가 ‘새로운’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이다.
- ④ ‘알보다’는 ‘알게’라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 쓰여 합성어이다.
- ⑤ ‘군밤’은 ‘구운’의 준말인 ‘군’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성어이다.

[2007학년도 수능 14번] - 접미사의 특성 이해 (본문 p.89)

14 어휘 · 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되다’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 그러므로 ‘능동’인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되다’는 일부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해당하는 명사와 용언의 어근, 부사가 의미하는 상태나 성질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바뀌거나 변화한다’는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되다’의 ‘건설, 발견’은 받침이 있는 말, ‘평가, 처리’는 받침이 없는 말로, ‘-되다’은 모두 결합 가능성을 알 수 있다.
- ② ‘-되다’의 ‘영광’은 명사, ‘못, 막, 참’은 부사로, ‘-되다’가 모두 결합 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 ③ 건설되다, 발견되다, 평가되다, 처리되다는 모두 동사이고, 못되다, 참되다, 막되다, 영광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 ④ ‘-되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그러므로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 않는다.